

I love MY student



노성태

군 제대 후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별교여자중학교였다. 1983년 첫 발령을 받았으니 벌써 20년이 더 흘렀다. 옛그때 첫발을 내디딘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더 지나다니... 그리고 보니 내 머리도 어느새 반백이 되었고, 학교에서 고참 교사가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하겠지만 나 역시 첫 부임의 순간 조금 뜸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과 교단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교사였기에 더욱 설

레였는지도 모른다.

총각 선생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급기야 교무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기 위해 창문 넘어 내다보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내 교직 생활 중 가장 잊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은 첫 수업 시간이다. 3학년 2반 반장의 차렷, 경례 소리에 맞춰 5군데에서 일제히 물총이 발사되었다. 아니 이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물총세례였다. 교생 실습 이후 처음 입어 본 다소 어색한 양복에 물은 물을 털어내고서야 침착히 내 이름 석 자를 쓸 수 있었다.

다음 시간은 3학년 4반이었다. 교탁 위에 우유를 가득 담은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이걸 다 먹어야 한다고 우겨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유 속에 소금을 듬뿍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20대 후반

이었던 당시 난 그들에게 질 수 없었다. 그래서 원샷에 한 바가지의 우유를 전부 마셔버렸다. 터져 나오는 학생들의 박수소리에 난 멧쩍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 후 1년 반 만에 대학원 진학문제로 휴직하고 그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전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이임사를 하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마친 후 운동장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모든 학생들이 창가에 얼굴을 내밀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를 합창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 손을 들어 답례하는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교사들이 행복하다면 이런 순간들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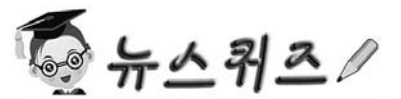
첫 부임지에서의 그 모습은 지금 내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도 늘 그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한다. 귀여운

놈들. 나의 교직 첫 출발을 멋지게 환영해 주었던 그들은 지금 40대에 막 들어선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별교여자중에서의 첫 부임 다음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내가 담임을 맡은 첫 아이들. 난 아이들에게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여 명 중 40명이 선생님만을 제발 편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성적이 좋은 아이, 엄마가 잘 찾아오는 아이, 얼굴이 예쁜 아이들만 편애하지 말아달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하소연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편애였구나. 순수하고 맑게 자라야 될 초등학교 시절 이미 우리 아이들은 편애 때문에 가슴이 멎들어 있었던 것이다. 전혀 예상 못한 학생들의 응답은 이후 내 교직 철학이 되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모두에게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는 편애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사건 이후였다. 나에게 깨우침을 준 그 아이들이 지금 보고 싶다. <국제고 교사>



93. 한국축구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경기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7년 만에 국가대표팀의 국내와 감독시대를 연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 ①허정무 ②김호 ③차범근 ④김정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1일(음 11월 2일 己卯)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아, 너무 귀여워."
아빠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좋아서 어쩔줄 모릅니다. 아이의 해맑은 함박웃음을 보십시오. 아기가 귀여운지, 강아지가 귀여운 건지 모르겠네요. 만지고 싶었는지 "가깝게 가서 보자"며 아빠를 보냅니다. 한 발짝 다가서면서도 아빠는 행여 놀랄까 품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꼬옥 부둥켜 안아 올립니다.

물 우리 앞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 무척 많습니다.
지난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회 광주인터내셔널 도그쇼 & 애완용품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애견들을 보면서 신기해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기나 직접 만져보느라 바쁜 아이들 옆에서 엄마들도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동물에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이 기회에 아파트에 개 들여놓는 시민들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91·92회 김운선씨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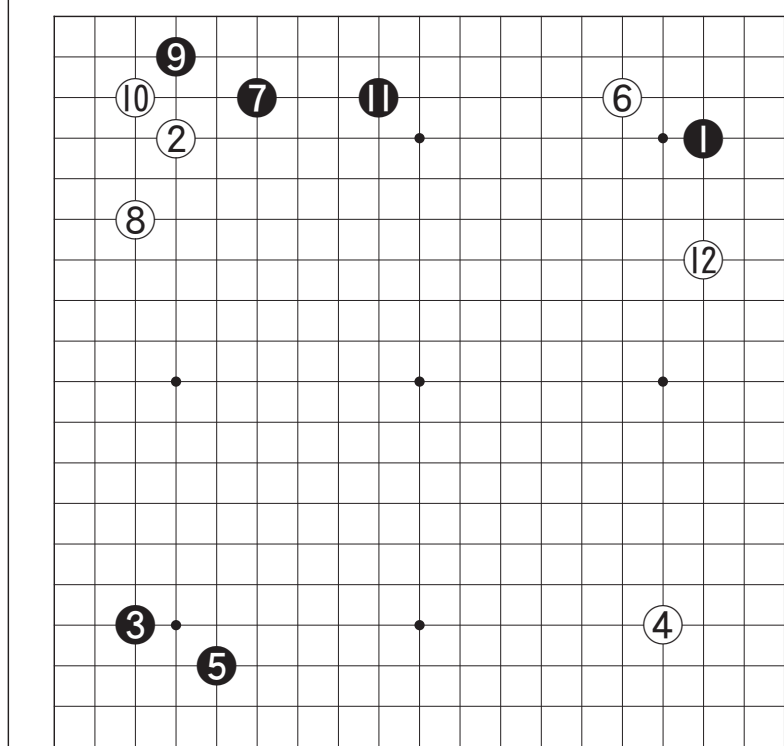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91·92회 뉴스 퀴즈 추천 결과, 김운선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0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91·92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75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운선·광주시 북구 우산동
2등 ▲이명재·광주시 남구 진월동



제88회 전국체전

일반부 결승전

이번에는 제88회 전국체전 바둑대회에서 가장 빅카드였던 일반부 결승전을 소개한다.
결승전에는 광주대표인 김남훈 7단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종합 1위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송홍석 7단 기라성같은 각 시·도의 대표들을 누르고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김남훈 7단 84년생으로 연구생 출신이다. 현재 육군에 복무중으로 특별휴가를 얻어 시합에 출전했는데 입대하기 전에는 아마10강전,이창호배,조남철배 등 굵직한 아마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아마최강으로 군림한 바 있다. 광주대표팀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빅카드

1보(1~12)

白 송홍석 6단 (경기도)
黑 김남훈 7단 (광주시)

금메달을 획득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휴가를 청원한 바 있다.
송홍석 6단 역시 연구생 출신으로 88년생. 건화배에서 우승했고 이창호배,남방장삼배 등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다코호스다. 송 6단 특히 준결승에서 광주대표인 심재욱 6단 꺾어 광주대표끼리 결승에서 맞붙는 경사를 방해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그 덕분에 심재욱 6단 어렵게도 동메달을 따내는데 그쳤다.
두대국자는 선후배 출신으로 서로를 잘알고 있는 입장. 더구나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입장이라 매우 신중한 출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목진석 올 90승...최다승 타이

'괴동' 목진석 9단이 연간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목진석은 10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2007 마스터스 토너먼트 2차전에서 전영규 2단을 꺾고 올 시즌 90승을 기록, 연간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목진석의 기록은 이창호 9단이 지난 1993년에 90승을 기록한지 14년 만의 일. 목진석은 연말까지 마스터스 대회에서 최다 5관, 한국바둑리그 1관 등의 대국을 남겨두고 있어 이번이 없는 한 이창호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올 시즌 112국을 기록하며 역시 이창호 9단의 연간 최다대국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52>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A: Where do you want to go? Have you ever been to the National Park?
B: No,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Do you want to go there tomorrow?
A: Sure. One of my friends told me that the National Park is quite a nice place to visit.
B: Let's go there tomorrow.
A: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국립공원 가보셨어요?
B: 아니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내일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A: 네, 제 친구 한 명이 알려주던데요. 그 국립공원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요.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B: 내일 그곳으로 가십시오.
* Have you ever been to ~? : ~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 quite a nice = very nice
* the National Park : 국립공원

오하오우 니혼고 <1052>
あれ、「幸運(こううん)の木」もあるんですね。
어머나 '행운목'도 있군요.
A:きれいな家ですね。あれ、「幸運(こううん)の木」もあるんですね。
B:それは引(ひ)つ越(こ)し祝(いわ)いに知(し)り合(あ)いからもらったんですよ。
A:あれ、あのかわいい子猫(こねこ)は、どこいっちゃったの。
B:さあ、どこにいますんでしょうね。タマ、タマ、どこにいますの。あ、椅子(いす)の下(した)にいたのね。
A: 깨끗한 집이군요. 어머나 '행운목'도 있군요.
B: 그건 이사 축하 선물로 아는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A: 아냐, 그 귀여운 새끼 고양이는 어디 가 버린 거야?
B: 글썄, 어디에 있겠죠. 타마! 타마! 어디 있어? 아! 의자 밑에 있었네.
幸運(こううん): 행운
引(ひ)つ越(こ)し祝(いわ): 이사 축하
知(し)り合(あ): 아는 사람
子猫(こねこ): 새끼 고양이

니하오 쑹구위 <29>
你的爱好是什么?
넌 취미가 뭐야?
A: 你的爱好是什么?
Ni de ai hao shi shenme?
니 너의(어)호오(은)스런(것)?
B: 我的爱好是弹钢琴。
Wo de ai hao shi tan gang qin.
와 나의(어)호오(은)스런(것)은(어)판(악)구(현).
A: 弹得好吗?
Tan de hao ma?
탄(악)구(현)하(는)어(는)가()?
B: 还行。
Hai xing.
하(는)어(는)행(하)는(거)야(?).
A: 넌 취미가 뭐야?
B: 네 취미는 피아노 연주야.
A: 잘 지니?
B: 그것 그래.
爱好 [ai hao] 취미
弹 [tan] 연주하다
钢琴 [gang qin] 피아노

한자 이야기 <669>
枉尺直尋(왕척직심)
굽힐 왕, 자책, 곧을 직, 여덟자 심
왕척직심(枉尺直尋)은 한자를 굽혀 여덟자를 편다는 뜻으로 오늘날 사전적 의미로는 소(小)를 희생시켜 대(大)를 도모한다든가, 작은 일을 참고 건더 큰 일을 해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맹자에 사용된 용례는 이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다. 이에 제자 진대는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좀 소심한 듯합니다. 이제라도 한 번 만나 보시면 크게는 그를 왕자(王者)로 만들고, 작게는 패자(覇者)가 되게 하십시오. 또 옛글에 '한자를 굽혀서 여덟자를 곧게 편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한 번 할 만 하십시오."고 하자, 맹자는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익이 깔려있다고 하면서, 이익만 받으면 '왕척직심'은 물론이고, 여덟자를 굽혀 한 자를 곧게 하더라도 서슴치 않고 그 이익을 따라갈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孟子·滕文公下)
그런데 '왕척직심'은 흔히 '교주고승(膠柱鼓瑟)'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교주(膠柱)가 옛 질서만을 강조하는 수구파(守舊派)의 입장이라면, 왕척(枉尺)은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쪽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